



광주 KIA 팬들 "반갑다 프로야구" KIA와 LG의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열린 2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3000명의 관중이 찾아 프로야구 열기를 보여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KIA 덕아웃 말말말
한국말 인사하는 앤서니
1년 만 지나면 잘 할거야

▲안 보이던 얼굴 보이니 반갑네 = 9박10일의 원정을 끝내고 안방서 첫 경기를 치른 KIA 선동열 감독. 광주에서 훈련중인 양현종·손영민·김주형 등 재활조 선수들을 보고.

▲1년만 있으면 말 잘 할거야 = 한국말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는 앤서니를 본 KIA 선동열 감독. 개막전에 개고기와 홍어를 먹어보겠다는 앤서니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말했다.

▲안정된 수비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쉽네요 = KIA 외야수 나지완. 천연잔디 구장으로 바뀐 것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비하기에 좋은 환경이 됐는데 이날 지명타자에 배치되면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한다며.

▲아껴먹어야지 = 재활중인 KIA 투수 양현종. 1군 덕아웃을 찾아 음료수를 쾅긴 뒤, 재활조에는 이온 음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쪽으로 오니까 사투리가 나오네 = 친정을 찾은 LG 투수 이대진. (LG가 사용하는)3루 덕아웃을 벗어나니 사투리가 절로 나온다는 것.

▲아버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 LG 김기태 감독.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IA에서 LG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외야수 윤정우에게 광주 고향집 다녀왔느냐면서, 김기태 감독과 윤정우는 광주일고 동문 사이.

▲오지마오 오지마 = KIA 내야수 김상현. 취재진이 다가오자 요즘 성적이 좋지 않아 할 말이 없다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라미레즈, 쓸만하네

LG전 5이닝 무실점투 ... SUN "선발 OK"

안방 돌아온 KIA 타격도 활발 7-2 승리

KIA 타이거즈가 2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7-2 승리를 거뒀다.

앞선 두 차례 등판에서 12.46의 방어율을 기록했던 새 외국인 투수 라미레즈가 선발로 나와 5이닝을 깔끔하게 막았다.

라미레즈는 첫 타자 이대형에게 볼 3개를 연달아 던지며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유격수 플라리와 유격수 팡블로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잡았다. 이병규에게 좌전안타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정성훈을 3루수 앞 땅볼로 요리하며 1회를 실점없이 넘겼다.

라미레즈는 이후 안정된 제구로 4회까지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5회 2사에서 윤정우에게 2루타를 내주기는 했지만 유강남을 유격수 플라리로 잡으며 시범경기 세 번째 등판을 성공적으로 끝냈다.

직구 최고 구속은 144km를 기록했고, 슬라이더와 투심·컷패스트볼로 5이닝을 2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며 승리투수가 됐다.

라미레즈는 "앞선 목동에서의 등판에서

는 릴리스 포인트 순간 아개가 열리면서 투구 내용이 좋지 못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신경쓰면서 투구를 해서 제구가 잘 됐다"며 "한차례 등판이 더 남았다. 더 좋은 피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빈이 라미레즈의 승리 도우미가 됐다. 2회초 LG 김재율의 깊숙한 타구를 쫓아 호수비를 선보인 김선빈은 이어진 공격에서는 2사 2루에서 깔끔한 중전안타를 때려내며 선취점을 만들었다. 이용규의 우전안타 때 홈을 밟으며 득점도 기록했다.

KIA는 5회 이용규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1루에서 신종길과 안치홍의 연속안타로 2점을 보태며 승기를 잡았다.

라미레즈가 깔끔한 피칭을 선보였지만 이어 등판한 임준혁과 한승혁은 나란히 1실점씩 기록했다. 임준혁은 첫 타자 오지환을 몸에 맞는 볼로 출루 시키는 등 사사구 두 개와 이병규의 적시타로 1점을 내줬다. 7회 마운드를 넘겨받은 한승혁은 첫 타자 김재율에게 128km짜리 슬라이더를 강타당하며 피홈런을 기록했다.

라미레즈는 "앞선 목동에서의 등판에서



라미레즈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야구장 천연잔디서 똥 호랑이들

"잔디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

무른 땅 부상 경계경도

"우리와 LG는 같은 조건에서 경기하는 거예요."

KIA 포수 김상현이 천연잔디 구장에서 탈바꿈한 홈구장에서 첫 경기를 앞두고 너스레를 한마디를 던졌다.

김상현의 설명은 이렇다. 스프링캠프에 이어 9박10일의 시범경기 원정길을 다녀온 뒤 홈에서 치르는 첫 경기인데다 그사이 인조잔디가 걷어지고 천연잔디가 심어지면서 홈 구장인데도 무등경기장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홈인인데도 어색한 상황"이라며 양팀 모두 새 그라운드에 적응하느라 동일한 조건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홈경기 이점"이 없다는 농담을 하면서도 김상현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천연잔디 위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에게는 기분 좋은 하루였다.

외야수 김원섭은 "잔디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아직 잔디가 무르기도 하지만 올 시즌 편하게 수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잔디 위의 플레이에 한껏 들뜬 선수들에게 부상 경계경도 내려졌다.

선동열 감독은 "아직 잔디가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서 땅도 무르고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다. 처음에 선수들 고생할 것이다. 예상치 못한 바운드가 나올 수도 있고 새 그라운드에 적응할 때까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완점도 드러났다. 김선빈은 "천연잔디로 교체되면서 타구 속도가 느려져서 내야 수비가 편하다. 100%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2회 김재율의 타구 같은 경우에도 인조잔디였다면 잡지 못했을 것이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외야 잔디가 너무 앞쪽으로 나오어서 수비 위치를 잡고 서있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KIA는 선수들의 의견을 들으며 그라운드를 재정비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 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